

## 광주·전남 내년 국비 '10조원 시대' 열었다

시, 2조7,638억·도, 7조1,782억...사상 최대 반영  
인공지능·도시철도·전남형 뉴딜·해상풍력 등 탄력

▶관련기사 3·5면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로 반영됐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지역현안은 미래먹거리 구체화와 부족한 지역 SOC 확충사업으로 채워졌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내년도 국비사업은 1,321건 9조9,420억원이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 광주의 경우 내년 국비 반영액은 올해 예산안 2조2,205 대비 14%인 3,388억원이 증액됐다. 신규사업은 65건 1,233억원, 계속사업은 250건 2조6,405억원이다.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융복합사업,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사업들이 전격 반영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6억원)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부품 신뢰성 기술고도화 사업(63억원) ▲지역ICT이노베이

션스케어 조성사업(50억원) ▲스마트급형 제조혁신 데이터활용 기반조성(30억원)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58억원) 등 신규사업 65건 1,233억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뉴딜사업으로 ▲인공지능 디지털파크 및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70억원) ▲무인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실증(30억원)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공지능 기반 구축(25억원) ▲수평적EV(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사업(20억원)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38억원) 등이 반영됐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산업·생활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기반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950억원, 첨단3지구 진입도로 개설 설계비 15억원 등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황애란·김용현 기자

박상백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미래산업을 선도할 인공지능 융복합사업, 사회통합형 광주형일자리 추진, 빛그린산단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선정 등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위해 광주가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안사업들을 뒷받침할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7조1,782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6조7,261억원 대비 4,521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전남 새천년 비전 블루 이코노미는 총 92건, 총사업비 9조7,000억원 규모로 국비 1조1,704억원이 반영됐으며, 블루이코노미 핵심 분야인 전남형 뉴딜사업은 28건 1,76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안에 반영된 대표적 사업으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에는 37억원이 반영됐다. 목포신항만 '지원항만' 지정을 비롯해 신안 8.2GW 등 도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풍력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2면으로 이어짐



박철홍 골드클래스(주) 회장을 대신해 박상군 보광건설(주)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와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맨 좌측)가 1일 오전 담양군청에서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전기밥솥 150개를 최형식 담양군수에게 전달했다.

### 골드클래스(주) 박철홍 회장 '통 큰 기부'

수해피해 전남 7개 시군에 총 2억1천만원 전달...지역사회 귀감

명품 아파트 브랜드 골드클래스(주)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에 2억1,000만원의 통 큰 기부를 실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철홍 골드클래스(주) 회장을 대신해 계열사인 박상군 보광건설(주) 대표이사과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는 1일 담양군청을 찾아 3,000만원 상당의 전기밥솥 150여개를 후원했다.

이어 오후엔 영광군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른 감염방지를 위해 3,000만원 상당의 텐탈마스크 5만장을 기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화순군과 장성군에 수재의연물품, 구례군에는 3,000만원 상당의 이불 300채, 곡성군엔 가스레인지 272대를 각각 기탁했다.

박상군 대표이사과 김선남 대표이사는 2일에는 나주시를 찾아 수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수재의연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상군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재



박철홍 회장

확산되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던 이어 폭염까지 기승을 부려 복구작업에 어려움이

에 집중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골드클래스(주)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올해 초 대구·경북지역을 직접 찾아 1억원의 성금을 기탁한데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에도 각각 1억원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총 3억원을 기탁했다. 지난해에도 다문화가정과 장애인가정을 지원했으며, 보성군과 나주시에는 5천만원 상당의 목욕자랑을 전달하는 등 아낌없는 기부를 실천했다. 골드클래스(주)는 대한민국 주거 문화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오직 건설 분야만을 추구하는 향토기업이다.

박철홍 골드클래스(주) 회장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면서 "수해로 힘들어하는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태풍 피해 막아라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1일 오전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북구청 관계자들이 태풍 피해에 대비해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을 접고 있다. /김생훈 기자

### 오늘부터 태풍 영향권...강풍피해 우려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CK)'이 2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일본 오키나

와 서북서쪽 약 2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6km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최대 풍속은 초속 49m에 이르는 '매우 강한' 태풍이다. 강풍반경은 380km로 관측되고 있다.

태풍은 2일 오후 3시께 제주도 서귀포 남남동쪽 약 20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다. 3일 오후 3시 부산 북쪽 약 20km 인근에 육상한 뒤, 3일 오후 3시께 청진 남쪽 약 15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은 2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일 새벽 1시께 여수 동쪽 100km 해상까지 태풍이 접근해오면 따라 비·바람 피해가 우려된다. /김종찬 기자

전남매일 전남청년 일자리 캠페인

##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전남지역 거주(예정)중인  
만18세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마을로' 란**

급여조건  
월 180~200만원 + 활동수당 30만원

지원내용  
마일리지 수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직장 내 조기 적응을 위한 멘토운영

**활동지역**  
전라남도 내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참조)

**문의전화**  
전남테크노파크: 061) 729 - 2914  
녹색에너지연구원: 061) 331 - 8560  
전남생물산업진흥원: 061) 362 - 5205

**접수 방법**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job.jeonnam.go.kr](http://job.jeonnam.go.kr) 접속

일자리지원 → 마을로 → 참여기업현황 내 참여기업 확인 후 접수 (회원가입 필수)

일자리지원 → 마이페이지 → MY 현황에서 접수내역 확인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JeollaNamdo
TP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JBF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